



겸업제한 폐지 4년 유예기간 동안 설비 건설발전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일 것

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회원 여러분의 건
승과 발전을 기원하며, 취임인사를 드립니다.

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협회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
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,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
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그렇지만 30여년간 설비건설업을 경영해온 경험, 그
리고 협회 부회장과 서울시회장을 역임한 소중한 경험
을 토대로 회원 여러분께서 협회를 신뢰하고 사업에만
전념할 수 있도록 업역 확보와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
력을 다할 것입니다.

회원 여러분!

지난 번 회장 출마 시의 공약과 총회에서 당선소감을
밝힌 바 있으므로, 오늘은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으로
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첫째, 4년의 유예기간 동안 우리업계가 독자적으로
발전할 수 있는 설비건설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며, 개
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둘째,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주환경 개선을 위해 우
리협회는 정부에 끊임없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습
니다만, 그 이전에 우리업계 스스로 정화된 모습을 보
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당장의 자금회전을 위해 직접
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하도급과 과당경쟁을 우리
들 스스로 자제코자 하는 풍토조성과, 특히 원도급자로

하여금 적정공사비의 원가투입이 공사의 품질향상과
직결된다는 의식전환을 위해 상생모임을 수시로 개최
하겠습니다.

오늘도 아침 일찍, 새로 취임하신 국토해양부장관과
의 조찬회의에서 설비와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
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점점 더 심해지는 저
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저가하도급 심사기준의 강화를
요청하였습니다.

이와 같이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좀
더 나은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
다하겠습니다.

회원 여러분!

지난 번 총회에서 저에게 제7대 협회 임원과 윤리위
원 선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.

그동안 명예회장님과 원로 회원님들께 자문을 구해
저와 함께 3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실 제7대 집행부의
구성을 마쳤습니다. 잠시 후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여
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제7대 집행부에게 회원
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

대단히 감사합니다.

2008년 3월 12일
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강 석 대